

# 익산 미륵사지 본격적 정비 착수

### 복원정비 연구결과 따라 기반부·배수시설 정비·관람환경 개선 추진

익산시와 문화재청은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사업의 하나로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내 강당지, 동·서 승방지, 동원 회랑(回廊, 지붕 있는 긴 복도) 등의 기반부와 강당지 앞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유적 정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번 기반부와 배수 시설의 보수정비공사는 훼손된 건물지 기반부를 정비하고 배수 문제로 인한 유구 훼손 방지와 관람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정비공사 완공 시기를 고려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 미륵사지는 1966년 최초 발굴조사 이후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총 16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미륵사지 조성 시기와 사역구조, 운영시기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밝혀진 바 있다.

2015년에는 중원 복회랑지와 강당지 구간 사이에서 석부재 등이 발견되어 2016년 9월부터 추가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2013년부터 유적정비와 복원 고증에 관한 연구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미륵사지 석재유구 훼손도 연구」, 「배수문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을 진행해 왔다.



익산시와 문화재청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하나로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내 강당지, 동·서 승방지, 동원 회랑 등의 기반부와 강당지 앞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유적 정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사진은 미륵사지터

익산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익산 미륵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륵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익산지역의 백제왕도 핵심유

적 보존관리 사업을 통해 백제 왕도의 역사성 회복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박종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촉구'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산시장 출마를 결정한 박종서 민주당의원 예비후보(사진)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운반선 8척을 수주하는 등 일감절벽이 해소되고 향후 수주물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전망도 밝은 만큼 군산조선소에 일감을 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오는 2020년까지 적용될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상당 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하고 미국의 에너지 수출 기조와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소비정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박종서 후보는 "군산조선소가 가동에 들어가면 5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고급 효과가 클 것"이라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현대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박노엽 익산 도의원 예비후보 개소식

익산시 제3선거구 박노엽 도의원 예비후보(민주당·사진)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지난 28일 가졌다.



는 익산, 찾아오는 익산"이라는 4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부부위안 야간 보육 탁아 시설 확충 및 익산 동부과 북부지역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 복지관 설립 추진, 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식품산업 박람회 개최,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부송로와 하나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조기 완공 및 의약품도로를 조기 시행 추진, 여산, 금마, 왕궁, 춘포면 등을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와 4.4만세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 확대간부회의 개최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30일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시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김철모 권한대행은 이날 분청 상황실에서 국·소·단장 및 각 과 부서장, 읍·면·동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고 회의는 주요 현안 보고 및 당면업무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동축제, 시민의 날 행사, 전국체전 등 주요 현안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은 추진상황 등을 전 부서와 공유하고 부서장 및 읍·면·동장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철모 권한대행은 "선거기간 동안 전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은 공직자 복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당면 업무 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각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직접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서동축제' 전북투어패스로 즐겨요

### 이용자 위한 특별한 혜택... 익산 순환형 시티투어 4~7일 무료 등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익산 대표축제인 익산서동축제2018에서 오직 전북투어패스 이용객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마련된다.

지난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우선 전북투어패스 소지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익산 순환형 시티투어가 서동축제기간인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매일 운영된다.

익산 순환형 시티투어는 익산역-고스라-교도소-세트장-미륵사지-왕궁리유적-보석박물관-익산역 코스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출발하며 미륵

사에서 서동축제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수시로 운행된다.

특히 서동축제장 내 모든 체험부스에서 전북투어패스를 제시하면 이용료가 1,000원씩 일괄 할인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와 전북투어패스 활성화와 방북에 따라 서동축제를 방문하는 전북투어패스 이용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서동축제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한편 익산서동축제2018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백제 고도(古都) 금마면 서동공원에서 진행되며 지난해 22개였던 프로그램을 41개로 확대하는 등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운영된다.

또한 익산시립예술단의 주제공연 천명을 비롯해 개막식 깃발퍼레이드, 서동선발대회 등 웅장한 공연이 메인 무대에서 펼쳐지고 용을 타고 백제투어, 어린이 백제무사체험, 유물 및 마케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매일 펼쳐진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안전한국훈련 준비에 행정력 집중

군산시는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30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유관기관 및 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회의는 유관기관인 군산소방서를 비롯해 군산경찰서, 육군 제9585부대 1대대, 군산교육지원청, KT 군산지사, 군산도시가스,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군산시 15개 협업부서 등이 참석했다.

오는 9일 군산문화센터 일원에서 실시될 지진복합 상황에 대비해 각 기관과 단체 협업부서의 단계별 대응 임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훈련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내실 있는 훈련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어린이행복도시 군산,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개최

군산시가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아동영향평가는 시청 전반에 대해 아동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은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중 아동

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동영향평가 시행계획 심의를 비롯해 2019년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법실시의 단계로써 각 부서별로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 26개를 선정했으며 5월 중에 전문가를 초빙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 군산시 GUNSAN CITY